

# 일등 철강산업에 어둠의 일등 안전이 있다

## 가북산업주식회사

취재 · 사진 | 최중덕 기자(safeeng@safety.or.kr)



채운복 대표이사

###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가북산업은 직원들이 다치지거나 다치지도 않고, 직장 생활 중에 아프거나 다친다면 이보다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치지 않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시설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직원은 자신이 다치지 않으면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이행된다면 재해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북산업에는 행복이, 자녀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 될 때 우리 사회도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북산업은 스스로의 안전, 더 나아가 주변 동료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기업을 만들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2005년 7월 현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켄텍에서 분사되어 지금의 가북산업(대표 채운복)이 탄생했다. 지금은 광양제철소 내 1기에서 4기까지의 코크스로 유지와 보수업무를 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규모인 5코크스 증설 작업에 참여 후 코크스 생산 및 품질의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철강산업 뿌리의 확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의 직접적인 이익보다 직원을 먼저 생각하는 확고한 기업문화까지 갖추고 있어 이곳의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북산업의 사명에는 새봄 나뭇가지에 움이 터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듯, 직원들에게도 늘 새로운 에너지와 출보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사명은 '사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라는 CEO의 경영철학과 함께 이곳 안전활동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직원을 생각하는 CEO의 마음이 사업장의 안전으로 이어지면서 이곳은 현재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하고 5배수 달성을 향해 거침없이 가북산업은 전진하고 있다.

### 안전문화시스템으로 위험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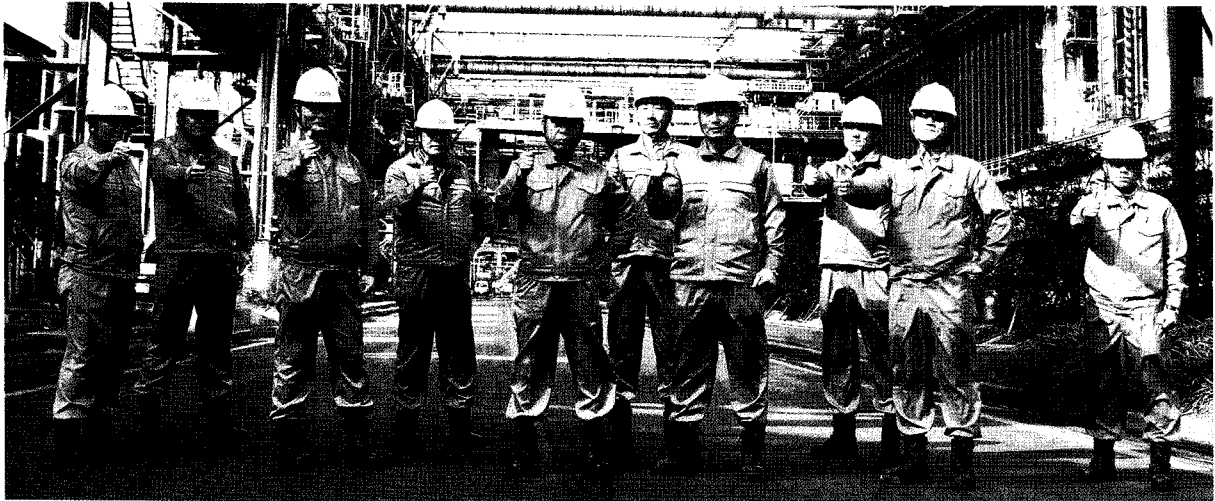
제철소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이 흐르는 장면일 것이다. 그러나 가북산업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용광로에 빠져서는 안될 열원제, 환원제, 통기성 유지제로 사용되는 코크스란 다공질 회백색 고체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석탄분진이 발생하고, 고온에 의한 고열작업 수반, 코크스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이 이곳의 열악한 환경을 말해준다. 사실 제철소 내 여타 다른 공정에 비해 작업여건이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사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위험, 무인운전설비에 의한 협착, 충돌 위험과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북산업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재해 4배를 달성했다. 이는 위험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성과여서 무재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 가북산업의 안전보건시스템

가북산업을 대표하는 안전하면 안전보건시스템을 들 수 있다. 3가지로 구분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전보건 혁신활동이 있다. 작업표준 Review, 위험기계기구 점검, 니어미스 발굴, 안전행동 관찰의 날 운영 등 빠



집없이 꼭 매운 스케줄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의 일과는 안전으로 시작해서 안전으로 끝이난다.

그 두번째는 철저한 안전보호구 착용과 가북산업만의 안전한 수공구 개발이다. 고열작업으로 화상과 가스 중독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작업특성상 방열복과 저농도 가스마스크, 안전모 착용 없이는 현장 자체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작업중에 발생한 위험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즉시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도 연계하여 향상에 도움을 준다. 즉,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북 산업 현장에는 안전사고 원인이 크게 줄었다.

마지막 세번째로 철저한 TBM 활동이 있다. 모든 공정이 무인안전 설비로 운영됨에 따라 프로그램 오작동과 이로 인한 협착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TBM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Fail safety 개념의 안전조치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동차 오작동을 대비한 비상정지 리모콘 휴대조치, 비상정지 반사판 설치, 무전기 휴대 등의 비상조치 사항 등은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한 중복 안전장치이다.

### CEO와 직원은 하나

포스코 산하 모든 패밀리사는 동일한 안전보건 활동을 시행한다. 가북산업은 국내 최고의 안전시스템 중 하나인 포스코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 중 G-COP이라는 학습동아리가 대표적이다. G-COP은 CEO와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채운복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좋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채운복 대표이사가 매일 현장을 찾아 Near Miss를 둘러보고, 발굴된 Near Miss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나눈다. 이는 직원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직원간 소통은 소장 그리고 현장의 주임, 반장 모두다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 이처럼 무엇 하나해도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이 가북산업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과도 상당하다.

2006년 광양제철소 내 금연인증 사업에서 가북산업 직원 전원이 금연에 성공하면서 금연인증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하인승, 김너, 또다시 금연 확인 인증을 받게된다. 더불어 시행될 비만관리로 "건강한 심신, 건강한 회사" 만들기에 공헌한다.

한가지를 해도 제대로 한다는 가북산업 사람들은 그 무엇도 형식적인 법이 없다. 이러한 자세가 이 회사가 2006년 1부 리그에 입찰함으로써 들었고, 지난해 광양제철소배 1부 리그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 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의 진면모를 보여줄길 기대한다. ☺

